

안부 및 감사인사

이렇게 유한재단에 감사 수기 공모를 보낼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힘들게 아르바이트와 교내 근로를 하던 중 유한재단의 고마운 도움을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라 일순의 고마움으로만 남을 뻔했지만 유한재단에서 공모 수기를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제 소식과 함께 장학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고자 이렇게 수기 공모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며 느낀 어려운 점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능을 다시 준비하던 재수, 삼수의 시간까지 인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공이 곧 가족의 성공이란 생각으로 대치 지역에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않던 읍지역의 작은 단칸방에서 악착같이 공부하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던 당시엔 동네에 현수막도 걸리고 홀어머니와 여동생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이제 혼자서 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서울은커녕 수도권에도 연고가 없기에 제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하여 의식주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여동생을 돌보는 것도 벅차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학우들이 서울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수도권 본가에서 생활할수도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교내근로와 아르바이트, 교내장학 프로그램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유기화학, 화학, 이산수학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며 무리하게 근로활동을 하여 성적 관리에도,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얻게된 것

그러던 중 2022 2학기 경 학과사무실에서 유한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한재단은 제 경제 사정 단 하나의 요인만으로 제게 큰 생활장학금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매달 80여만 원을 벌여 기숙사비와 식비, 통신비를 쓰고 남은 돈을 여동생 용돈 계좌로 보내고 나면 한달 한달을 살기 빠듯해 전공 서적이나 태블릿 pc, 옷이나 신발 등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용품들을 '사치품'으로 생각하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재단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했지만 차마 살 여유

가 없어 포기했던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책을 살 여유가 없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거나 (덕분에 우수 대출자 명단에 올랐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파일을 미리 일일이 인쇄하여 수업에 가져가던 식이었는데 파일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웠는데 태블릿 PC를 구입한 후 원하는 전공서를 서울대학교 도서관 DB에서 파일로 빌린 다음 펼쳐 필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시간을 내어 인천, 경주 등 국내 여행지에서 낚싯줄 줍기 봉사 활동, 불국사 체험 등 동기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쪼개 일해도 포기해야만 했던 동기들과 함께 국내의 명승지로 가서 문화재를 보고 함께 얘기하던 추억, 다른 학생들처럼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유한장학금에 대한 의견

유한장학금에 대한 귀 재단의 고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등록금 장학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는 귀 재단의 분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실제로 저와 제 여동생을 비롯해 상당수의 저소득 학생은 이미 한국 장학재단과 각 대학의 기본적인 소득 연계 등록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대부분 덜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만 상당수 장학 재단과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혜성 장학금의 성격이 등록금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저소득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은 생활성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상당수 학생은 자교 프로그램과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등록금을 부담없이 납부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 유한재단이 생각하는 생활비 집중형 장학프로그램으로서의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유한장학금의 차별화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수혜 대상도 저소득 계층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 사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기존의 장학제도가 닿지 못하는 다양한 학업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확장 의도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제넘게도 제가 의견을 덧붙이자면,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약간의 고려도 함께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다문화, 결손, 외국인 유학생 등에 해당할지라도 경제적 여건이 보통 학생들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학생을 선발할 때만큼의 기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진 못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는다면 더 많은 학생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한장학금에 대한 건의

유한장학금을 통해 학기 중 큰 도움을 받아 대학 생활에 숨이 트였지만 갑작스레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인사를 남길 경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해당 장학금은 일회성이 강해 한번 수혜하고 난 후 재단을 통한 추가 활동이나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순환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다른 장학생들과 함께 유한재단에서 특별한 활동들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유한재단을 통해 대학 생활 중 큰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감사를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열리길 바랍니다.

끝인사

장학금을 받은 건 작년인데 이제야 수기를 적게 되네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의 저는 아직 재학생이고 좁은 학교에 틀어박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지내고 있지만 늘 제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주된 목표는 전문가가 되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낙후된 수의료서비스와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중 보건 체계를 바로잡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꿈의 끝은 아닙니다.

저는 대동물(소, 말, 돼지, 양 등) 전담 전문가가 되어서 술기가 손에 익어가고 병원이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다면 라오스의 열악한 수의학 교육 시설과 가축들을 돌볼 대형동물 전문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국제적 NGO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라오스는 높은 축산업 성장률을 갖고 있고 국가 기반 사업으로 축산이 거론될 만큼 축산업에 많은 기반을 두고있으나 수의료 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구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축산을 막 시작한 초보 농가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부족해 수의사 대신 선배 농부나 본인이 직접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한재단이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처럼 더욱 배우고 술기를 연마해 제 기술과 지식이 라오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NGO 기업을 만들어 키워가고 싶습니다.

다소 맹랑하게 보일 수 있는 풋내기의 각오지만 이렇게 유한재단 등 여러 기업들과 교수님, 동기들의 지원을 받아 어렵기만 했던 서울로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으니 남은 과정도 호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수기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